

여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의 과간 절흔

울지예대 노원올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최남홍

목 적

여성에서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해부학적 차이, 호르몬의 영향, 생역학적 문제등이 생각되고 있으며,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에서의 과간절흔이 남성보다 작다고 보고되어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간절흔을 여성과 남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서로 비교 하여 성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연구 대상은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 남자 21명, 여자 22명이였다. 평균 연령은 남자 26.3 세, 여자 27.6세로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. 수상 원인은 남자에서 축구 8례, 스키 5례, 농구, 실족 3례등이며, 여자에서는 스키 14례, 태권도 3례, 축구 2례 등이였다. 대상 환자 전례에서 수술 전 자기 공명영상을 얻어, 슬와근구(popliteal groove)가 가장 잘 보이는 영상을 결정하여, 대퇴과간 절흔폭의 비, 대퇴과간 절흔 깊이의 비, 대퇴과간 절흔 기저선으로 부터 하부 1/3지점간 대퇴과간 폭의 비, 대퇴과간 절흔 기저선으로 부터 상부 1/3지점간 대퇴과간 폭의 비와 대퇴과간 각을 측정하여,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였다.

결 과

대퇴과간 절흔폭의 비는 남자에서 0.222, 여자에서 0.212 였고, 대퇴과간 절흔 깊이의 비는 남자에서 0.190, 여자에서 0.196였다. 대퇴과간 절흔 기저선으로 부터 하부 1/3지점간 대퇴과간 폭의 비는 남자에서 0.208, 여자에서 0.198였고, 대퇴과간 절흔 기저선으로 부터 상부 1/3지점간 대퇴과간 폭의 비는 남자에서 0.222, 여자에서 0.213였다. 대퇴과간 각은 남자에서 57.6°, 여자에서 54.5°였고, 모든 측정된 요소는 남자, 여자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.

결 론

대퇴 과간의 절흔의 협소는 여성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된다.